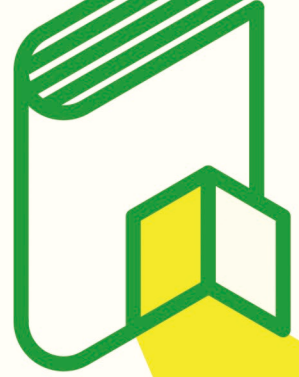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만나다 작은도서관을



일시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14:00~17:00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니콜라오희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한겨레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1판 1쇄 2015년 11월 17일

발행인 박재승

주최 희망제작소 SH공사 한겨레신문사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전화 02-2031-2147

E-mail ajsong@makehope.org

Web www.makehope.org

프로그램

일 시 2015년 11월 17일(화) 14:00~17:00
장 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니콜라오 홀

일 정

서문	14:00	[환영사] 변창흠 SH공사 사장/ 송우달 한겨레신문사 경영총괄 전무이사/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14:10	[축사]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1장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여는말] 아파트에서 불어오는 공공의 바람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
	14:20	아파트작은도서관 생존기 최재희 구로구 천왕지구 연지타운2단지 글초롱작은도서관 관장 김순영 은평구 구파발 10단지 책뜰애 작은도서관 대표 양 희 강서구 마곡지구 15단지 꿈꾸는 작은도서관 활동가
	14:40	지속가능한 아파트도서관을 위한 주민조직 이해와 관계 설정 박정숙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14:55	아파트작은도서관 불만합창단 은평 뉴타운 아파트작은도서관 주민활동가
휴식	15:00	
2장 아파트, 공동체로 함께 걷다	15:10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에서 희망을 보다 송하진 희망제작소 연구원
	15:30	[좌장]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토론자]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 처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서진아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남원석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외 발제자 5인
끝맺는 말	17:00	폐회선언

[1]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소개	7
[2] 지속가능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한 주민조직 이해와 관계 설정	19
- 박정숙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3]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에서 희망을 보다	25
- 송하진 희망제작소 연구원	
[4] 토론	37
[5] 읽을거리	39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소개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소개

1. 개요

- 희망제작소와 SH공사, 한겨레신문은 2013년부터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행아공 사업)을 진행
 - 2013년은 임대단지 1개소, 임대분양 혼합단지 1개소에서 주민관계 형성 및 자치 경험 증진 등 공동체 기반 형성 사업을,
 - 2014년은 이런 공동체의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존 사업 대상지 지원 및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공동체 형성 지원
- 2015년은 기존 행아공 사업을 평가, 보완하여 주민의 자생적인 활동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거점 공간으로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함

2. 배경

- SH공사는 2012년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수립 후 핵심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의 인적/공간적 거점으로 ‘커뮤니티센터’ 설치 추진. 특히 커뮤니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과 연계하여 작은 도서관에 커뮤니티 센터 기능을 복합하여 사업 효과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년간 아파트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을 통해 단지 내 공동체 활동의 거점 기반 마련 및 주민주체 등장 등의 성과를 도출했지만 6개월간의 전문기관 인큐베이팅 이후 주민 자치적/자립적인 운영 구축 및 아파트 공동체 거점으로 역할과 기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설치된 작은 도서관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운영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작은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업을 도출하여 아파트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

사업대상지

자치구	단지명	임대형태	세대수	입주시기	도서관 규모 (㎡)	위탁 운영
강서 (9)	마곡1단지	국민, 장기혼합	237	14.6.20	263	위탁 운영 완료
	마곡2단지	국민, 장기혼합	408	14.6.20	122	
	마곡3단지	국민, 장기혼합	315	14.6.20	221	
	마곡4단지	국민, 장기혼합	420	14.6.23	115	
	마곡5단지	국민, 장기혼합	439	14.6.27	349	
	마곡6단지	국민, 장기혼합	1,466	14.6.13	223	
	마곡7단지	국민, 장기혼합	1,004	14.6.13	240	
	마곡14단지	국민, 장기혼합	1,270	14.5.29	69	
	마곡15단지	국민, 장기혼합	1,171	14.5.29	91	
은평 (2)	은평구파발10단지	국민, 장기혼합	712	2012.02	133	
	은평폭포동4단지	장기전세	297	2010.06	81	
구로 (8)	천왕연지타운1(천왕2-1)	국민, 장기혼합	571	2013.12	53	위탁 운영 없었음
	천왕연지타운2(천왕2-2)	국민, 장기혼합	1,018	2014.02	42	
	천왕이펜하우스1단지	국민임대	314	2011.10		
	천왕이펜하우스2단지	장기전세	526	2011.06		
	천왕이펜하우스3단지	국민임대	1,044	2011.10		
	천왕이펜하우스4단지	장기전세	478	2011.08		
	천왕이펜하우스5단지	장기전세	522	2011.07		
	천왕이펜하우스6단지	국민임대	678	2011.06		

주요사업 내용

구분	내용	기간
사전조사/ 사업설계	• 전문가 및 주민 인터뷰 • 사업 설계 및 프로그램 구성	1차 : 4월 ~ 6월4주 (은평, 천왕) 2차 : 8월 2주~9월 3주 (마곡)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도서관 (작아도) 희망학교	• 주민 활동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작은도서관 연결망, 자원 교류 등을 통한 내·외의 사회적 자본 형성 •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역할, 기능, 공감대 형성 및 수립	7월2주 ~ 10월2주
과제 프로젝트	•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구/단지가 당면한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결 • 이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활동 주체를 육성하고 작은도서관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	8월3주 ~ 11월2주
네트워크 촉제	• 한 해 동안 진행한 작은 도서관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대중에 홍보하는 장 • 작은 도서관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교류하고 서로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자리	- 11월 3주
컨퍼런스	• 아파트커뮤니티거점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지속성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환기 및 공감대 형성 • 관련 (인적, 경험적, 정보적, 지식적) 원의 활발한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한 현실적/현장적 대안 찾기	

5. 세부사업

가. 네트워크 학교 '작아도 희망학교'

- 대상 및 회차: 3개지구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 은평구 구파발(뉴타운)지구 · 구로구 천왕지구는 12회, 강서구 마곡지구는 5회 진행
-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실시: 서울시내 21개 아파트작은도서관 직접 면접 조사 및 각 지구별 작은도서관연합회 대표자 인터뷰, 작은도서관활동가, 전문가 자문 등

- 조사를 통해 지금 아파트작은도서관이 당면한 문제와 자원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종합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세워 교육과정에 반영
- 지구별 교육내용은 각 지구별 특성과 욕구에 맞추었기 때문에 상이함

○ 운영원칙

원칙	내용
찾아가는 교육	• 교육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주부들의 참여와 집중도를 확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단지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필요시 교육 시간 중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보조 교사 배치
경험중심 교육	• 일방적 강의식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이 스스로 현실을 진단하고 이슈 발굴, 해결할 수 있는 실행 프로젝트 운영
n개의 아파트작은도서관 찾기	• 단지별 아파트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상을 수립 •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 강화	• 지구별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경험 제공 및 기반 마련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 세부 커리큘럼 예시 (천왕지구)

차시	일자	내용		강사
1	07/09 (목)	OT	교육 프로그램 소개, 일정 안내	희망제작소
		자기소개	"나는요, 우리 도서관은요"	
		이야기 나눔	'걸어온 길, 걸어갈 길' _자원 활동 나눔	
2	07/16 (목)	소셜픽션	'우리가 만드는 꿈의 도서관'	김산 ('소셜픽션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을까' 공저자)
3	07/24 (금)	강의	'희망의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희망의 사람들'	고병헌 교수 (성공회대)
4	08/13 (목)	사례소개	아파트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흥 참이슬 아파트 용인 장미 아파트
		오픈 테이블	아파트 주민 활동가와 이야기 나눔	
5	08/20 (목)	작아도 모둠활동1	모듬활동의 의미와 방식소개	희망제작소
		Workshop	욕구 발견 및 원인 탐색 워크숍	
6	08/29 (토)	현장탐방	용인 느티나무 도서관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7	09/03 (목)	작아도 모듬활동2	모듬활동 기획서 작성 법, 기획서 쓰기	희망제작소
8	09/10 (목)	강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	이미경 (마을N도서관)
9	09/17 (목)	실무교육1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이해	박정숙 (책이랑도서관)
10	10/01 (목)	실무교육2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이해	박미숙 (책놀이터)
11	10/08 (목)	작아도 모듬활동3	프로젝트 점검	희망제작소
12	10/15 (목)	매듭짓기	교육 전체 피드백 나의 변화 기술하기	희망제작소



나. 과제 프로젝트

○ 운영 목적 및 목표

-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구/단지가 당면한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결_솔루션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
- 이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활동 주체를 육성하고 아파트작은도서관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형성

○ 운영 원칙

원칙	내용
당면 과제 해결	• 천왕 지구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공통의 문제를 찾아 해결 • 배움의 과정이 실제 도서관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솔루션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
네트워크 활용	• 개별 도서관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공유하고 지역 멘토 및 전문가 그룹,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지원

- 진행과정에서 희망제작소는 문제의 발견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내·외부 네트워크 형성과 자원연결의 코디네이팅 진행



○ 과제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	내용	
은평	여행하는 카메라	시간대 별로 활동시간을 나눠 활동하기에 자원활동가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자원활동가 간 유대감과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도서관에서의 일상을 찍고 도서관에서의 경험을 적어 교환일기처럼 공유
	불만합창단	아파트작은도서관 활동에서 쌓인 불만과 요구를 노래로 만들어 표현하는 불만합창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노래를 연습해 축제 당일 발표
천왕	천왕지구 통합 아파트작은도서 관운영 매뉴얼 제작	천왕지구에 8개 단지의 작은도서관이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던 규칙이나 지침들을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매뉴얼을 제작. 각 도서관의 특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가 가진 노하우, 좋은 서식 등을 공유하는 의미로 진행.
	천왕지구 통합 아파트작은도서 관 운영 규정 개정	각 단지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이 존재하는데 같은 지역 SH아파트임에도 단지마다 내용도 다르고 독소조항이라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여럿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 합의를 통해 이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다. 네트워크 축제

○ 목적

- 한 해 동안 진행한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이하 ‘작아도 희망학교’)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중에 홍보하는 장
-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가 함께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각 지구의 네트워크를 유도

○ 개요

- 제목: “아파트작은도서관, 다독다독”
- 대상: 작아도 희망학교 교육을 수료한 은평구 뉴타운, 구로구 천왕, 강서구 마곡 지구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및 이해관계자 약 70명
- 일시: 2015년 11월 21일 (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 구성: 무대 행사 및 전시

세션	무대	전시
오프닝 (14:00~14:30)	참가자 접수 및 장내 정리 식사 & 전시 관람 오프닝 알림	활동 영상 불만합창단 영상 도서관 소개 판넬 여행하는 카메라 활동사진 네트워크 게시판
오프닝 공연 (14:30~14:50)	예쁜봄송아꽃물(빛그림 동화)_속닥속닥빛그림 기타 공연_천왕 초등학교생 기타 동아리	
내빈 인사 (14:50~15:00)	내빈 인사	
아파트작은도서관, 서로를 만나다 (15:00~15:40)	토크콘서트_아파트작은도서관, Thank you	
아파트작은도서관, 걸음을 걷다 (15:40~16:20)	전체 여정 살펴보기_희망제작소 과제프로젝트 발표_천왕, 은평 주민활동가 불만합창단 공연_은평 교육 참가자 전원	
아파트작은도서관, 다시 약속하다 (16:25~16:55)	작아도 희망학교 수료식_천왕,은평,마곡 참가자 경품 이벤트 진행	
마무리 (16:55~17:00)	단체 사진 촬영 기념품	



6. 콘퍼런스

○ 개요

가. 주 제 : 아파트 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나. 일 시 :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14:00 ~ 17:00

다. 장 소 : 카톨릭 청년회관 <다리> (서울 홍대입구 소재)

라. 주최주관 : SH공사, 한겨레신문, 희망제작소

마. 대 상 :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 주민, 아파트 마을만들기 관련자, SH공사, 지자체 정책 결정자 및 담당자 등 100여명

○ 기획의도

- 전국 3,932개의 사립작은도서관 중 아파트작은도서관은 1,173개로 3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게 되어있는 현행 주택법의 덕택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룸. 그러나 양적 성장에 걸맞은 구체적인 탐색과 이해 노력, 이 공간의 가능성을 확장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음.
- 본 콘퍼런스는 희망제작소가 SH공사, 한겨레신문과 함께 구로, 마곡, 은평에서 진행한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통해 확인한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 대해 논의하고 여기서 확보한 사회적 자본(주민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등)이 아파트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하려 함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발제1.

지속가능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한 주민조직 이해와 관계 설정

발제1. 지속가능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한 주민조직 이해와 관계설정

아파트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를 꿈꾸다

박정숙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몇 년간은 작은도서관이 화두였다면 요즘 들어서는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아파트 도서관이 화두로 떠오른 듯싶다. 그 전까지 공공도서관은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대안으로 지역주민 생활 가까이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고, 쉽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도서관의 문턱을 없애, 책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마을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다.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시작한 자발적인 도서관 문화 운동과 독서 문화 운동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1만개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정리하고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역할을 재조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마을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활동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작은도서관의 설립 수가 아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증가세가 조금 주춤해졌다면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주체별 설립 도서관의 비율이 새마을문고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개인 및 단체, 종교시설, 법인 설립 도서관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2012년 747개(24.4%), 2013년(24.9%), 2014년 1,173개관(29.8%)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사립							공립	합계
	개인 및 단체	새마을 문고	종교 시설	법인	아파트	무응답	계		
2012	887	508	726	150	747	39	3,057	894	3,951
	29.0%	16.6%	23.7%	4.9%	24.4%	1.3%			
2013	1,068	625	835	234	945	91	3,798	888	4,686
	28.1%	16.5%	22.0%	6.2%	24.9%	2.4%			
2014	1,178	416	934	231	1,173	0	3,932	1,302	5,234
	29.9%	10.6%	23.8%	5.9%	29.8%	0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주체별 현황〉

이러한 아파트 도서관의 증가세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설립의 규정만 있지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운영의 여부는 오롯이 아파트 주민들의 몫으로 주어지고 있다. 2004년 이후로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도서관 등록을 운영하는 추세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작은도서관 개관부터 시작해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는 도서관이 아파트 내에 위치함으로써 아파트 내의 조직과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작은도서관만의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대부분 아파트 내에서 공간이 제공되어지고 시설 유지에 필요한 전기세, 난방비 등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1/n로 나누어져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주민들만의 공간으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짙다. 또한 아파트 내에 있는 조직들,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경로당과 도서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도서관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기도 하고 아예 문을 닫기도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작은도서관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부녀회, 작은도서관 등이 자생단체로 등록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잡수익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설립 주체가 아파트 주민들이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 또한 지원을 받는다면 지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도서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지출하고 처리하여, 매달 또는 분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아파트 내 조직들과, 주민들과 신뢰가 형성되어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운영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자 조직이 자유롭게 결성되어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문제를 그 안에서 논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나 도서관 담당 동대표가 참여한다면 아파트 수입의 사정이나 도서관 운영 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되어 서로의 조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는 도서관 운영자들이 하달을 받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녀회와 도서관

예전에는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었지만 지금 건설된 아파트 내에는 부녀회가 없는 곳들이 많다. 그렇긴 해도 부녀회가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아파트들도 꽤 있다. 부녀회는 아파트 내 다양한 살림과 행사를 하는 조직이고, 도서관은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해야 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조직이다. 부녀회와 도서관의 업무와 전문성이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그 업무와 활동량이 너무 많아 자원봉사자들이 힘들어 한다. 부녀회와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분리하여 운영하였을 때 도서관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로당과 도서관

경로당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도서관의 활동과 겹쳐지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인지, 경로당과의 관계에서는 마찰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도서관은 지

역주민들 모두가 이용하고 서비스해야 하는 공간이므로 도서관 이용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들은 업무로 만난 사이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간의 관계형성으로 도서관 조직의 활동이 좌우된다. 도서관에 대한 철학과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방향도 조금씩 다르다. 그 생각들을 끄집어내어 서로 소통하고 도서관의 비전과 활동에 대해 하나의 합일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에 관련한 갈등 해소 훈련이 필요하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회의와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은 도서관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을 안 타 단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은 그 규모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책을 소장할 수 없고 적은 운영비로 운영된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같은 마을 안 타 단지 도서관과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였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도서관 서비스와 책을 좀 더 풍부하게 제공하고 마을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학 도서는 워낙 이용률이 많으니까 다같이 도서관에 비치하고 과학도서는 우리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비치할 테니 역사 도서는 건너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비치하는 것이다. 문화 프로그램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마다 특성을 살려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면 마을 사람들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마을 안 모든 사람들이 마을 안 모든 도서관에 아무런 제약없이 회원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안정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목소리 큰 몇몇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아파트 자생단체로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도서관 운영위원회 안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아파트 내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므로 아파트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발제2.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에서
희망을 보다

발제2

아파트작은도서관에서 발견한 공동체의 희망

송하진 희망제작소 연구원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이란?

도시의 지배적인 주거형태가 저층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었다. 서울의 경우 2010년 처음으로 아파트가 단독주택을 제치고 주거형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¹⁾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은 이렇게 도시의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아파트문화를 바꾸는 사업이다.

2013년 시작된 행아공 사업은 첫 해 영구임대단지 1개소(월계사슴2단지), 임대분양 혼합단지 1개소(강일리버파크7단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아파트 환경개선, 주민커뮤니티사업, 마을축제 등을 진행했다. 2014년에는 1차년도 사업을 통해 발굴한 주민 리더와 주민관계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 사업 대상지로 공공임대 아파트 1개소(구파발10단지) 및 청년공공임대주택(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을 선정하여 1차년도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를 확장했다. 2015년에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진행했다. 기존에 단지 단위의 사업에서 주민자원 발굴과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의 사업을 실시해 마곡, 은평, 천왕 3개 지구에서 17개 단지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참여한 사업을 진행했다.

개인주의의 공간 아파트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파트공동체의 가능성에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다. 실상 아파트에서는 공동체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는 “사는 곳(Living)” 이 아니라 “사는 것(Buying)” 이라 불린다. 아파트는 주거와 정주의 목적

1) 인구주택총조사, 2010

보다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 뉴스로도 많이 다뤄지는 층간소음, 경비원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을 보면 그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아파트라는 공간이 가진 역사적 맥락이나 구조적 한계를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 ‘한국의 아파트단지는 그 태생부터 도시 시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집단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어졌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관계가 자라나기에는 한계가 있는 주거지다.’²⁾라는 이야기는 아파트에서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우선 2013년과 2014년에 진행한 행아공 사업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보고서에는 2년에 걸쳐 진행한 행아공 사업이 ‘개인의 필요 및 문화적 욕구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고 기술되어있다. 주민 개인의 필요가 합치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필요가 높은 문화 강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은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쉽고 낯선 주민들 간의 교류와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서 공동체 기반의 초기단계에는 유효한 방법이다. 다만 이질적이고 다양한 주민들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위해 요구되는 개인의 책임 및 공동체 전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의제, 공론장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한계에는 아무리 주민 주체, 주민 주도의 사업을 설계한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외부의 단체인 희망제작소를 통해 진행된다는 부분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지난 사업은 공동체에 큰 관심이 없는 주민들에게 ‘아파트에도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문화적 관심과 개인적 필요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데 많은 힘을 들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쩌다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주민 그룹이 생긴다 할지라도 소수에게 과도한 역할과 책임이 집중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동력이 쉽게 사그러지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최근 아파트단지에는 전통적인 입주자 대표회의 혹은 부녀회나 노인회 외에도 새로운 주민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30~40대의 비교적 젊은 주민들이 활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젊은 주부들이 아파트 내 각종 모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참여는 아파트에 새로운 기운을

2) 박인석, 『아파트 한국사회』, 현암사, 2013

불어넣는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관점에 대한 차이로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앞서 인용한 『아파트 한국사회』 박인석의 지적에서도 드러나듯 아파트라는 공간은 공동체 형성과 유지에 친화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는 단독주택 단지와 아파트 단지를 비교하면서 ‘공공 공간과 격리된 개인 공간’, ‘단조로운 동선 구조’, ‘생활지원서비스와의 일방향적 접속 관계’ 등 개인이 사회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살도록 되어있는 아파트 단지가 필연적으로 공동체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이미 도시의 주거가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된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 도시공동체를 고민하면서 아파트를 빼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40%는 공동체와 무관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는 도시공동체의 거점으로 아파트가 다른 마을 공동체와는 어떻게 다른 특수한 공동체의 방식과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 그것이 SH와 한겨레, 희망제작소가 많은 고민 속에서도 행아공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아파트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

행아공 사업이 분리되고 단절되어있는 주민 간의 관계 형성에 집중했던 이유는 세대 간 혹은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를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통해 풀어보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행아공 사업의 평가에서도 언급했듯 단순히 친밀한 관계 자체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확보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친밀감만 나누는 관계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에 이성적, 합리적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올해 사업에 있어 관계성은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공통의 문제에 관심 가지는 참여를 지지해 줄 수 있어야한다’ 는데 의견을 모은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사이트 준이치가 이야기하는 ‘친밀권’ 이라는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새롭게 창출되는 공공권의 대부분은 친밀권이 전환되어 생겨난다고 말하는 편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친밀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서, 특히 그 외부에서 부인 혹은 멸시의 시선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자존 혹은 명예의 감정을 회복하고, 저항의 힘을 획득, 재획득하기 위한 의지처’³⁾일수 있다고 말

한다.

이런 친밀권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형성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 ‘민주적 합의과정’에 대한 연습과 실천이다. 관심사의 공유를 통해 형성한 많은 주민 모임이 지속가능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필요와 문화 활동에서 출발하여 관계를 형성한 주민모임이 내부의 공동의제 혹은 아파트 전체의 공공의제와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역량의 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교육받지 못했고 생활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진행해본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나 아파트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자치활동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단지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공공의 필요와 사적 가치 사이에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더 자주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 안에서 이런 갈등과 공동의 문제해결이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이미 제도화 되어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활성화 할 뿐 아니라 아파트 내 주민 주체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소통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생활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소통의 주요한 장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재발견

아파트작은도서관은 2015년 행아공 사업을 진행하며 지난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고민 끝에 발견한 공간이었다. 위에서 설명한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가지는 관계성에 대한 고민, 나아가 공동체 형성에 필수 요소라고 판단한 민주적 합의과정에 대한 연습과 실천에 적합한 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치 지우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14년 은평 뉴타운 지역의 구파발 10단지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으로부터였다. 10단지에는 ‘책뜰애 도서관’이라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있었고 당시는 SH에서 제공하는 인큐베이팅이 막 끝나 주민자치 운영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교육프로그램은 ‘책뜰애 도서관’의 공간을 중심으로 독서

3)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지도나 숲 나들이, 명상과 같은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관심자들을 이끌어 내고 교육 과정 속에 공동체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하여 이 교육 안에서 맺게 된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초 교육 당시에는 다양한 공동체 소모임이 꾸려져서 바느질, 그림 교실 등 20여개의 모임이 운영되기도 했지만 2015년 초 프로젝트의 기획을 위해 다시 찾아간 책뜰에 도서관에는 지속되고 있는 모임이 책읽기 모임 1개 밖에 없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힘들어져서, 인기가 없어서, 때로는 오히려 인기가 너무 많아 대기자들의 원성 등등의 이유로 모임이 지속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실패로 볼 수도 있지만, 본 프로젝트팀이 주목한 것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유입된 주민들을 동력 삼아 다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겠다는 점이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없었으면 모임이 사라지면서 흩어졌을 수 있는 주민들이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마곡, 은평, 천왕의 사업 대상 단지를 포함한 22개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을 방문조하며, 각 도서관의 시작은 유사한 과정과 방식을 통해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텅그러니 빈 공간만 있던 작은도서관이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해서 같은 마음의 주민들을 모으게 되고 그 주민이 또 다른 주민에게 함께 할 것을 권유하고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공간의 운영을 고민하게 되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도서관의 모양을 갖추가고 있었다.

우리는 아파트자원활동가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도서관이라는 공적 공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공간을 유지함으로서 내 아이, 나아가 우리 단지의 주민들이 누릴 유익을 실질적인 필요와 욕구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사적인 필요와 공공성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원활동가는 스스로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주민으로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무보수의 자원활동이지만 자원활동가로 등록하는 순간 아파트의 공적 공간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이렇게 경계에서의 고민을 주민활동가들에게 제공하고 개인화 되어있는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공적 가치를 고민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필요를 넘어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책임감과 고민이 개인의 부담으로 남지 않는 것이다. 책임은 나눠서 지고 고민은 공동의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때 더 단단한 작은도서관, 나아가 공동체로서의 기본이 세워질 수 있다. 여기에 적절한 교육적, 제도적 지원이 있을 때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의식을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하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은 이 공간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000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으로서, 혹은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공공의 유익을 고민하고 확장시켜나가는 활동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학습해 나가고 있다.

사례 탐색 1. 은평 뉴타운 아파트작은도서관: N개의 작은도서관

행아공 사업이 아파트작은도서관의 공동체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프로젝트이기는 했지만 사실 아파트작은도서관은 공동체를 말하기 이전에 앞으로의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곳들이 많다. 그러나 공동체의 형성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는 아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생존과 발전의 노력을 계속하다보면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통한 공동체 형성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일까? 다만 중요한 것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중요하다’, 아니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한다’ 등 사회적으로 정해진 상을 쫓도록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은평지구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인터뷰하며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들이 가진 부담에 대해 듣게 되었다. “우리는 꼭 외부에 알려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있다. 그냥 우리는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목표인데.” “봉사로 시작한 일인데 사업을 따라가려니 힘이 든다.” 은평지역은 특히 서울에서도 작은도서관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은평 뉴타운 지역의 아파트작은도서관 중 일부는 은평의 작은도서관활동가들의 인큐베이팅을 받기도 했다. 이들 활동가의 전문성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인큐베이팅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고민도 생겼다. 일반 사립작은도서관들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운영비 때로 상근 활동가의 인건비까지 확보해야하는 고충이 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활동으로 도서관을 알려 좋은 평가기준을 받아야하고, 서울시나 구청의 도서관 지원사업이나 마을사

업을 진행하는 일도 많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다보니 아파트작은도서관으로서는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다. 자신들은 임대료를 따로 부담할 필요도 없고 운영비도 아파트의 잡수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굳이 지자체의 사업 등을 따와서 진행해야 할 필요를 못느낀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주인은 지역의 주민들이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도서관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작은도서관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도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SH아파트의 경우 임대단지의 분양 조건에 따라 주민 구성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구파발 10단지 책뜰애 도서관은 다자녀 가구 중심의 30-40대 젊은 주부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파발 7단지 마고정 문고는 중·대형 세대들이 많고 주 연령층도 50~60대로 높은 편이다.

두 단지를 구성하는 가구의 연령층과 가족구성이 다르다보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운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책뜰애는 중,고등 학교 멘토 학생들을 외부 단지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반면 마고정은 단지 내 자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공간 구성도 책뜰애가 아기자기한 공간 구성으로 주로 유, 초등생들에게 적합한 공간 구성과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고정은 일부 공간을 중, 고등학생을 위한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가진 책뜰애가 자원활동가 확보가 어려운 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마고정의 경우 좀 더 안정적으로 자원활동가를 확보하고 있다.

사실 현재 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제도는 이런 디테일한 조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획일한 평가기준으로 ABCD등급으로 나뉘지는 현실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도서관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폐쇄를 논의하기 이전에 아파트작은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있었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들기는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은 주민에게 맡기고, 잘 안되면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회가 도서관을 대하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이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아파트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의 현실을 반영한 상상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을 하나의 고정된 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입주민들의 생애주기, 구성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장소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SH임대 단지들의 경우 영구나 장기 임대 아파트와 같이 정주성이 다른 아파트들 보다 더 긴 특징이 있다. 20년이면 30~40대였던 청장년층은 50~60대가 되고 어린 아이들은 청년이 되는 기간이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처음부터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장서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운영할 수 없다면 이런 주민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한다. 혹은 각 지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작은도서관 각각을 하나의 도서관이 훌어진 분관처럼 생각하고 특성을 잘 살려 공간과 장서, 프로그램을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에게서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실천하는데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필요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지구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아이디어 실행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교류와 협력, 작은도서관의 개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단지 입주민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관계를 풀어가는 데 대해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해결책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할 공공적 가치와 보장해야할 개인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의 형성을 통할수 밖에 없다.

행아공 사업의 다른 지구인 천왕지구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갔는지 알아보려 한다.

사례 탐색 2. 천왕 뉴타운 아파트작은도서관 : 공동의 과제해결을 통한 시민의식의 성장

천왕지구에는 8개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천왕지구는 특히 아파트작은도

서관 간의 네트워크와 협업이 잘 구축되어 있었다. 천왕지구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시작이 인근의 혁신학교인 천왕초등학교 독서모임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단지 작은도서관 공간을 살리기로 결의하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과 작은도서관을 시작하자마자 천왕지역 마을공동체들과 함께 천왕마을축제를 함께 개최하면서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 초기 네트워크 구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천왕지구에서는 이번 행아공 사업의 교육프로그램에 모든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참여했다. 모든 단지들이 함께하면서 공동으로 해결해 볼 과제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지구 차원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관심이 모였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사라지지 않고 주민들안에 남아있었고 이것이 과제프로젝트 해결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전에는 관장들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이번에는 교육을 함께 듣고 있는 일반 자원활동가들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구차원의 협업의 경험을 확장해 나갔다는 점이다.

천왕지구는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각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침이나 서식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모아 천왕지구 아파트작은도서관의 통합 매뉴얼을 제작했다. 자원활동가의 모집, 교육, 작은도서관의 홍보, 이용자의 관리 등 서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나누고 빈 곳을 채워주는 작업을 진행했다. 작은도서관 마다 다르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기록의 부분도 통합 서식을 마련해 제대로 진행해 보기로 했다.

또 한 그룹은 아파트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천왕지구의 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겪은 갈등으로부터 시작했다. 이 단지에서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관장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때까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아파트작은도서관 관리규약이 등장한 것이다. 관리규약에는 작은도서관 관장이 연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지만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으로 되어있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아파트작은도서관 관리규약이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보며 문제의식을 느낀 천왕지구의 아파트작은도서관들은 모두 자신의 단지에 있는 아파트작은도서관 관리규약을 챙겨보게 되었다. 살펴보니 단지별로 조향도 조금씩 다르고 일부 조향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의 독립성을 지

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받게 되었다. 이에 모든 단지의 아파트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참여해 의미가 불명확한 문구들을 수정하고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작은도서관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규약을 만들게 되었다.

만약 이런 갈등이 한 단지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작은도서관 두 주민주체간의 갈등양상으로만 불어졌다면 이런 제안은 나오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성되어있고 공동의 과제를 풀어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지 어떤 단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었기에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것이다.

결언

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운영을 주도하던 관장이나 대표가 아닌 일반 자원활동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굴한 것이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영과 활동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동체나 작은도서관활동 모두 일부의 주민에게 많은 책임과 역할이 몰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번 사업에서는 여러 차례의 주민미팅을 통해서 도서관의 리더급 주민들 뿐 아니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닌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대표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내 단지만이 아닌 지역이 함께 나누고 고민해야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일반 주민 활동가들도 함께 경험했던 것은 장기적으로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목적했던 네트워크의 강화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다른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곡, 은평, 천왕의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 시작 시기가 조금씩 달랐기에 먼저 시작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자신들의 경험과 운영의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 활동가들이다. 앞으로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반면 올해 사업이 아파트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아파트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한 더 넓은 범위의 고민을 충분히 해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거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향후 아파트공동체 사업의 진행에 있어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아파트의 자치기구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논의구조를 만들고 민주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할 뿐 아니라 아파트내의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한다.

지난 일 년여의 행아공 사업을 진행하며 작은도서관이 공동으로 공공의 과제를 해결하는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합의 과정과 절차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번 프로젝트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진행되었기에 완전한 주민 자치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꼭 일부 지역만의 상황 혹은 희망제작소가 개입했기에 가능한 특수한 사례라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천왕을 비롯해 은평 그리고 아직 도서관이 문을 연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마곡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싹트고 있던 아파트공동체의 씨앗들이 있었다. 이제 서울시, 전국 각지에서 남모르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며, 아파트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토론



토론패널

[좌장]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토론자]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 처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서진아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남원석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최재희 구로구 천왕지구 연지타운2단지 글초롱작은도서관 관장

김순영 은평구 구파발 10단지 책뜰애 작은도서관 대표

양 희 강서구 마곡지구 15단지 작은도서관 활동가

박정숙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송하진 희망제작소 연구원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읽을거리



아파트에서 불어오는 공공의 바람

이은주 (전)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지난 수십년 동안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국 도시의 주요 주거형태는 저층 주택에서 고층 아파트로 빠르게 바뀌었다. 아파트는 중산층이 주로 사는 집으로 인식되면서, 편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게 됐다. 게다가 재산증식 수단으로까지 인식된다. 주택에서 아파트로의 빠른 이동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규제인가, 이웃과 소통인가

아파트가 정주하는 ‘집’ 이 아닌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공동체 형성은 어려워졌다. 아파트는 개별가구가 완결적이고 폐쇄적이며, 각 가구가 맡아야 할 공동·공공서비스를 관리사무소가 전담한다. 이런 특징 탓에 단독주택에서는 자연스럽게 빈번하던 주민 간 접촉과 교류는 줄 수밖에 없다. ‘아파트 공동체’ 는 공동체에 대한 대단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진 열성적인 주민이 없다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이러한 반공동체적 경향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이나 관리비 운영 등에 주민 갈등 심화를 연관 지어 생각해보게 만든다. 다시 말해 주민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근 시도된 법 제정과 같은 규제적 접근보다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그 속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는 공동체적 접근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012년 ‘층간소음이웃사이’ 통계자료를 보면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웃 간 분쟁이 65% 해소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최근 한 신문사의 층간소음 갈등대책 주민조사에서 주민의 53.5%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건축규제나 처벌이 아닌 ‘이웃과 소통’ 을 들었다는 데에서도 공동체적 접근의 유효성을 알 수 있다.

아파트 공동체의 좋은 모델을 만드는 행아공 사업

희망제작소의 행복한아파트공동체사업(이하 ‘행아공 사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행아공 사업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아파트 문화를 바꾸고, 단지 내 공동·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파트 공동체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삭막한 아파트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2013년부터 SH공사,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진행해오고 있다.

공동체, 특히 도시형 공동체에 있어서 핵심은 관계망이다. 서로 알고 지내는 주민이 많고 기쁨과 어려움을 쉬이 나누며 돕는 이웃들이 많으면 그것이 마을인 것이다. 이웃에 대한 교감과 신뢰가 생기면 소소한 불편함에 관대할 수 있고, 이웃을 배려해 알아서 좀 더 조심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행아공 사업의 핵심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거점삼아 다양한 주민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와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 간 교류와 관계망이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이끌 주민 리더들이 등장하고 성장한다. 궁극에는 공동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와 참여의 문화가 아파트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지난 2년간 4개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봉제작업장, 마을도서관, 탁구장과 같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확보되고 활성화되었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소모임, 동아리, 축제, 벼룩시장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민 간 교류와 관계망이 만들어지고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민리더들이 등장하고 연결되는 성과를 얻었다.

동네 사랑방 작은도서관에서 피어오르는 마을의 공공성

올해로 3년 차인 행아공 사업의 새로운 고민과 시도는 이렇게 등장한 주민 주체와 공동체 활동들이 지속가능하고 좀 더 공공적일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모색하는 것이다. 행아공 사업을 통해 등장하고 연결된 주민 주체들의 활동이 지속성을 갖고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와 욕구를 넘어서 공동체 차원의 공공적 의제로 확장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기존 4개 단지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서울 지역의 크고 작은 다양한 아파트 공동체 현장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동을 주목하게 되었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작은도서관 운동은 2000년대에 들어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민간과 관이 협력하면서 활성화를 맞았다. 2006년 도서관법 개정 및 정부나 지자체, 기업 등의 협력이 늘어나면서 전국에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만들어졌다. 아파트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있고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주민 기금과 자원봉사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꾸려가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곳이다. 주민에 대한 독서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금은 작은도서관을 지역의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생적인 시민운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도서관 서비스 욕구를 주민 스스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주민의 협동과정을 통해 풀뿌리 공동체 문화와 민주적인 자치문화가 형성되는 곳이며, 공동체 현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중요한 사회적 의미와 의의를 가진다.

작은도서관 운동의 바람은 아파트에도 불고 있다. 단지 내에 오랫동안 방치된 마을문고를 주민이 나서서 청소하고 정리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한 곳도 있고 마을문고조차 없는 단지에선 공동관리비로 관리사무소 한편을 리모델링하여 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다. 최근에는 3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 규정과 지자체들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공동체적,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그것도 온전히 주민의 힘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작은도서관의 대표적 성공사례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단독주택지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지 황량한 대단지 콘크리트 숲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아파트의 공동체 형성과 공공성 확장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은 여전히 다른 어떤 것보다 ‘핫’한 공간이자 내용물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의 양적 확대만이 아닌 운영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모색일 것이다. 2015년 행아공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여기에 둔 주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

2015년 행아공 사업은 준비단계에서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현장을 찾아가 운영 현황 및 주민활동가들의 고민과 요구를 들었다. 이러한 조사내용에 기반을 두고 주민활동가와 작은도서관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구단위별 ‘(가칭)아파트작은도서관네트워크학교’ 파일럿 사업을 기획하였다. 오는 7월부터 은평구 구파발지구와 구로구 천왕지구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지구단위로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아파트의 작은도서관 주민활동가 대부분이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주부들로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구단위를 넘어서면 의지나 열정과 무관하게 참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망 한계선도 지구단위다.

이 사업은 주민활동가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의 비전을 열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의 성장과 더불어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민활동가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한다. 이 둘

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

‘(가칭)아파트작은도서관네트워크학교’를 수료한 주민활동가들이 새로 생긴 다른 작은도서관 운영을 컨설팅하기도 하고 전업적인 마을활동가로 나아가는 등 주민과 도서관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활동가들이 교류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서로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개별 현장에서는 여력이 없어 시도할 수 없었던 것들을 네트워크의 힘으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활동의 어려움을 서로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동지적 관계망이 형성되어서 주민활동가들의 비빌 언덕이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이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

2015년 행아공 사업은 관에 의해서든 민에 의해서든 또는 주민에 의해서든 지난 몇 년간 아파트공동체에 등장한 주민 주체와 공동체 활동이 지속가능하려면, 또한 그 활동들이 공동체의 공적 주제로 확장되려면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 실험하려고 한다. 공공성과 지속성, 커뮤니티성의 잠재력을 지닌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를 확인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작성일: 2015. 5. 11

원문: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http://www.makehope.org/?p=24794>

아파트 도서관은 OO이다

희망제작소 행복한아파트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 팀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문제다”

‘아파트작은도서관’에 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진행한 전문가 인터뷰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비전이나 꿈보다는 안고 있는 문제와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풀어냈습니다.

1994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이후(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사람도 지원도 부족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뜻이 있는 누군가 혹은 몇몇이 힘을 합쳐 공간부터 장서 구성까지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공간도 장서도 미리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공간 임대료 걱정을 더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훨씬 나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텅 빈 공간에 책만 먼저 텅 그러니(심지어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주어졌을 뿐 그 공간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주민들은 빈 공간을 기웃거리다 걸음을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입주자대책위에는 쓸데없는 도서관보다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자는 민원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파트작은도서관들은 모두 문을 닫았을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서관 문을 열지요?

‘2015년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의 핵심 대상을 아파트작은도서관으로 정하고(지난 글 [칼럼]아파트에서 불어오는 공공의 바람 참조) 조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활동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도서관 공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공공성에 주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볼만한 도서관 사례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문만 열고 있지 않을까 짐짓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인 구로구 천왕동과 은평구 뉴타운 지역에 조사 대상 아파트작은도서관은 10개소가 있고 인근 지역 아파트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 20개소 정도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처음 우려가 무색하게 문을 닫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서관마다 많게는 30여 명에서 적게는 10여 명이 자원 활동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자원 활동가들은 “내가 없으면 우리 아파트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될까봐 힘들어도 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활한 지원이 없다보니 기존에 생각하는 ‘도서관’의 모습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자원활동가가 부족해서 하루에 3시간을 열기도 합니다. 일부 시간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면 한참 모자라겠지만 임금을 받는 상근 사서도 없고 최소한의 운영비(냉,난방 및 전기) 외에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자원활동가들만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아파트 입주자대책위와 겪는 갈등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작은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관계망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파행 운영되고 있거나 도서관을 공공의 공간으로 인

정하지 않아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입주자대책위와 관계에 따라 도서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립니다.

우리가 만난 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들은 이런 문제를 ‘소통’이라는 정공법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도 합니다.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원활동가들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아파트라는 공간에 도서관이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주민의 공적 공간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왜 필요할까

2015년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한 상을 찾자’ , ‘아파트라는 공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 공간이 지닌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를 미션으로 시작했습니다.

구로구 천왕동과 은평구 뉴타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작아도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이하 ‘작아도 희망학교’)는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작아도 희망학교’ 교육의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교육

자원활동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주부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단지 내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N개의 다양한 아파트작은도서관 모델과 비전 수립

도서관마다 상황에 맞게 어떤 부분은 현실을 고려하고 어떤 부분은 현실을 넘어서는 고민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파트작은도서관만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원활동가 사이에 관계와 연대감 향상

자원활동가들의 성장과 그 안에서 파생되는 관계와 연대감 향상을 위한 대화의 시간, 서로의 활동을 객관화하며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배치하였습니다.

넷째, 단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와 협업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상시적으로 가진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아도 희망학교는 아파트단지별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네트워크와 협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작아도 희망학교’에 참여한 주민 활동가들이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 다른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스스로의 모델을 찾아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문제다’라는 우려 대신에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색다른 공간이다’라며 비전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작성일: 2015. 9. 10

원문: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http://www.makehope.org/?p=26760>

작은도서관 주민활동가 기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하여

서진미 (천왕 이펜하우스 6단지 꿈터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동네에서 ‘작아도(작지만아름다운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가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12주 교육일정으로 운영되는 우리 동네 8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사실 ‘12주’라는 시간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선뜻 내기 어려운 시간이다.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교육생을 20명 이상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걱정과 달리, 28명이나 ‘작아도 희망학교’에 참가 신청을 했다.

교육 첫날, 동네의 익숙한 장소에 28명의 엄마들이 모였다.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습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한 느낌과 기대감도 들었다. 우리 동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생기고 여러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교육장이 멀거나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모두 참여하거나, 그것도 힘들 땐 시간이 되는 관장님들이 서로 돌아가며 교육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아파트작은도서관 관련 일로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만났다. 처음에는 공무원이나 언론인 미팅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속에 있던 솔직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게 되었다.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겨 점심 식사까지 함께할 정도였다. 연구원께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상대방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주제는 관심이 없구나.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솔직하

고 거침없이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 희망제작소는 작은도서관 관련 교육을 준비 중이었는데, 작은도서관의 현장상황을 알아야 교육 프로그램을 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원들이 직접 인터뷰와 답사를 다니는 중이라고 했다. 그 취지를 듣고 나니 ‘와,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살짝 생겼다. 물론 정말 잘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인터뷰 이후 시간이 흘렀고 나는 교육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희망제작소에서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고, 관련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최종 계획서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는 천왕지구 8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다.

교육은 7월 초에 시작되었다. 7월은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어 엄마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았던 것은 교육장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는 다자녀 가정이 많아서 한 집에 보통 3명의 자녀들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더라도 장소가 멀면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교육은 집 앞에서 진행이 되니,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 빨리 귀가해야 한다거나 교육기관의 호출 같은 돌발상황에도 비교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다. 혹시 교육일정을 깜빡 잊더라도 교육장이 가까우니까 바로 뛰어가면 된다. 아마도 많은 엄마들이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교육장을 선정할 때 본 연구원들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인원 수용 등 공간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인테리어, 분위기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동안 이런 무료 교육들은 사실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도 무료니까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좋은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니 무척 고마웠다. 무엇보다 자녀양육이라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엄마들에게 ‘나도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다.

이제 교육은 중간 정도 진행된 상태다. 매일매일 동네 안과 밖에서 바쁜 일정으로 정신이 없지만 ‘작아도 희망학교’가 열리는 목요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 실제 사례를 듣는 것도 좋다. 정보도 얻고 자극도 된다. 무엇보다 교육기간 동안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기대가 크다. 우리 동네 8개의 작은도서관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문 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느끼면서도 한정된 자원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작아도 희망학교’ 준비과정에 의견을 내게 되었고, 그것이 작은도서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듬활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다.

단지 내 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도서관에서만 일하다 보니 다른 단지의 자원봉사자들과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은 모임을 통해 자주 소통하는 편이라 어느 정도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았고 그 공감대 형성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떨까’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아도 희망학교’에 함께하면서 어렵고 힘든 도전을 함께 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과연 12주 교육이 끝난 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지난 6주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남을 것 같다. 비록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어렵고 힘든 점을 공감하고 함께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오늘도 크게 외쳐 본다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도서관을 위하여!’

작성일: 2015. 9. 11

MEMO

MEMO

